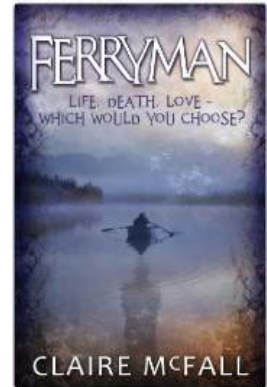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FERRYMAN
가제 : 뱃사공
저자 : Claire McFall
출판사: Templar Fiction
발행일: 2013년 3월 1일
분량 : 38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2013년 '스코틀랜드 아동도서상' 최우수상 수상

다섯 살 때 헤어진 아버지를 만나러 떠난 기차 여행, 비극적인 사고와 눈 앞에 나타난 낯선 소년

엄마의 지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날. 딜런에게는 아침부터 묘한 일들이 벌어졌다. 간호사로 일하는 엄마가 출근 전 서둘러 깨우는 잔소리에 어렴풋이 정신이 들었을 때, 딜런의 머릿속에는 간밤에 꾸 이상한 꿈의 느낌이 아직 열게 남아 있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천천히 다가와, 어깨에 따스한 팔을 두르던 느낌, 주변에는 나뭇잎과 습기가 가득한 공기 냄새가 가득해서 꿈이지만 딜런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기분 좋은 온기를 느꼈다. 그는 누구일까? 궁금했지만 얼른 등교부터 해야 했다. 학교에 갔다가, 저녁 기차를 타고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십 년 넘게 얼굴도 못 본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짐을 챙긴 후 서둘러 역으로 가는 길에, 딜런은 아침에 느낀 묘한 기분에 또 다시 사로잡혔다. 금발, 둥근 얼굴, 한눈에 들어오는 짙은 코발트 블루의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언뜻 눈앞을 스쳐가는데 분명 꿈에서 본 그 얼굴이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진 기분이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 사람은 눈앞에서 사라진 후였다.

마침내 도착한 기차역. 딜런은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부푼 기대로 혼잡한 인파 속에 겨우 기차를 찾아 자리에 앉았다. 막상 기차에 오르니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솟구쳐 심장이 쿵광대기 시작했다. 다섯 살 때 엄마와 헤어진 이후 처음 만나는 아빠. 얼굴도 아무런 추억도 기억나지 않는 아빠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만나러 가는 길이라,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긴 여행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 여행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줄은 딜런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어쩌면 아침부터 찾아온 묘한 조짐들이 엄청난 운명을 예감하는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서 만난 깊은 사랑, 운명의 기로에서 사랑과 죽음, 삶을 선택해야 하는 소

너

언덕과 낮은 산들이 연이어 나타나는 험준한 지역을 통과하던 열차는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다 결국 철로를 탈선해버린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사고 현장에서, 딜런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만다. 겨우 다시 의식이 깨어났을 땐 혼자 컴컴한 터널 안에 있었다. 왜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구조대가 한 명도 보이지 않을까? 혹시 나 혼자 살아남은 건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이 없어 천천히 터널 밖으로 나간 딜런은 순간 할 말을 잃고 만다. 끝없이 펼쳐진 언덕들, 인적이나 마을이라곤 보이지 않는 낯선 시골길 한복판이었다. 그런데 바로 가까운 언덕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왜 남자아이였다.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딜런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굴었다. 딜런을 보자마자 불쑥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트리스탄이라는 이름의 그 소년은 딜런에게 자신을 따라가면 된다고 말하며 앞장서기 시작한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딜런은 일단 소년의 말대로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믿기 힘든 사실을 깨닫고 만다. 자신이 기차에서 겨우 빠져 나온 유일한 생존자가 아니라, 유일한 사망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트리스탄은 자신을 저승으로 데려갈 안내자라는 것을.

트리스탄은 딜런을 긴 강으로 데려가 독에 매어둔 배에 태우고 저승을 향해 노를 젓기 시작한다. 갓 이승을 떠난 딜런의 순수한 영혼을 빼앗으려는 망령들이 들끓는 뱃길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지만 트리스탄이 딜런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그것이 그의 임무이고, 그에게 주어진 책임이었다. 딜런은 험난한 여행을 이어가면서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의 감정은 트리스탄도 느낀 것 같았다. 그러나 여행은 끝이 나고, 저승의 문턱에 다다른 트리스탄은 먼저 내리면 자신도 따라 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뒤돌아보니 이미 사라진 후였다. 딜런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저승으로 들어가는 대신 트리스탄을 방금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면? 그러려면 조금 전까지 겪은 위험한 여행을 안내자 없이 홀로, 다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삶, 죽음, 사랑, 딜런 앞에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다. 몽환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묘사가 돋보이는 소설로, 2013년 '스코틀랜드 아동도서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저자 소개>

클레어 맥폴(Claire McFall)은 글라스고에서 나고 자라 계속 살면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제목 : THE WAY WE ROLL
가제 : 우리가 사는 방식
저자 : Scot Gardner
출판사: -
발행일: 2016년 7월 1일
분량 : -
장르 : YA 소설



열일곱 동갑내기 두 소년의 우연한 만남, 피를 나눈 형제처럼 진한 둘의 우정과 남모름 비밀

쇼핑센터에서 카트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만난 줄리안과 윌리엄. 서로 비슷한 또래라 금세 친해진 두 사람은 남는 시간에 푸드코트를 돌아다니다가 금세 친해졌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 자기 소개를 하고 보니, 그 동안 꽤 오랫동안 같은 곳에서 일했지만 제대로 얼굴을 본 건 처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윌리엄은 질문을 해대는 줄리안에게 원래 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학교가 싫기도 하고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관렸다고 설명했지만 그 이상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대충 웃어넘기고, 이번에는 가족에 대해 묻는 윌리엄에게 아버지는 해외에서 일하시고 대학생인 누나와 애완동물 두 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다고 둘러댔다. 역시 서로 예상한대로 둘은 열일곱 동갑이었다. 윌리엄은 굳이 묻지 않아도 술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얀 피부에 선명한 문신이 인상적인 그는 이곳에서 쇼핑카트 정리한지 벌써 1년이나 됐고, 그 전엔 폭행죄로 소년원에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엄마와 형,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여자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깜짝 놀라 사람을 도대체 얼마나 때렸냐고 되묻는 윌리엄에게, 줄리안은 그럴 만 한 놈이었다며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지만, 각자 털어놓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둘 다 말하지 못한 혹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윌리엄은 줄리안에게 설명한 것처럼 누나나 애완동물과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 지금 임시로 머무는 곳은 한 스포츠센터 볼링장 한 구석의 숨겨진 공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그곳 회원인 것처럼 카운터를 통해 들어와서는 매일 밤 땡땡거리는 볼링공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침까지 그 공간에 숨어서 눈을 붙였다. 유일한 친구라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길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다. 윌리엄은 사발 면과 참치 캔으로 끼니를 겨우 때우면서도 늘 곁에 있어주는 고양이와 사이 좋게 음식을 나눠먹으며 그 차가운 공간을 나름 안락한 공간을 꾸며놓았다. 줄리안과 푸드코트에서 처음 대화를 나눈 바로 그 날도 윌리엄은 남몰래 비밀 거처로 돌아왔다. 그런데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강렬한 손전등 불빛이 들어닥쳤다. 줄리안이었다.

도시 한 구석에서 각자의 이유로 험난한 삶을 이어가는 두 십대 소년의 흥미진진한 로맨스

사실 그 날, 처음 서로를 알게 된 두 사람은 어떤 여자 손님이 카트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 때

문에 몸싸움을 벌이다 주먹다짐까지 하고 말았다. 윌리엄이 지갑 주인을 찾아주려고 주머니에 챙겨 넣은 그 지갑을 줄리안이 갑자기 달려들어서는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 화근이었다. 내놓으면 분명 줄리안이 지갑 안의 돈을 훔칠 거라고 확신하며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를 흠씬 두들겨 팬 윌리엄. 정신 차리고 보니 줄리안은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쇼핑몰 손님들 여럿이 모여들어 둘을 뜯어 말리고 있었다. 이런 소란을 피웠으니 일자리를 잃겠다는 생각에, 윌리엄은 쓰러진 줄리안을 두고 그만 도망쳐버렸다. 그 뒤를 줄리안이 몰래 따라온 것이다.

몇 시간 만에 집과 가족이 있다는 거짓말이 들통난 윌리엄. 호기심에 따라왔다는 줄리안은 그 손님의 지갑을 훔치려던 게 아니라 고객센터에 가져다 주려고 했으며, 돌려주고 포상금으로 100달러를 받았으면서 절반을 윌리엄에게 건넨다. 그냥 장난으로 빼앗으려 달려들었는데 윌리엄이 단단히 오해한 것이다. 사람을 때리고 소년원에 갔다 왔다는 말에 생긴 오해였으리라. 윌리엄은 그를 다짜고짜 나쁜게만 봤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먼저 주먹을 날린 줄리안도 사과한다. 그렇게 다시 친구가 된 두 사람. 그 날부터 피를 나눈 형제 같은 두 소년의 우정이 시작된다.

무슨 사정에선지 집도 갈 곳도 없이 스포츠 센터에 몰래 숨어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윌리엄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도 진품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다. 커다란 문신을 하고 역시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동갑내기 친구 줄리안은 롤렉스 시계를 보자마자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닳은 듯 다른 두 사람의 속내를 감춘 우정.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저자 소개>

스콧 가드너(Scot Gardner)는 호주 출신의 YA 소설 작가로, CBC 도서상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주 우수도서상 결선에 오른 소설 『Burning Eddy』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 『Gravity』는 2007년 호주 빅토리아 주 우수도서상 결선에 올랐으며, 『The Dead I Know』는 2012년 CBCA 어린이 도서상을 수상했다.